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선택요인 분석과 졸업 후 진로 조사*

최진호** · 정완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원)에서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n=92)으로 피아노 교수학을 대학(원) 전공으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과 학위과정 후 갖기를 원하는 희망진로와 실제 진로를 알아보는 것으로,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Korean Piano Pedagogy Major Inventory (KPPMI)*를 사용하여 측정, 비교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들은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피아노 음악이 좋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좋은 연주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피아노 지도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원하는 직업과 진로는 대학교수와 외국 대학원 진학인 반면, 실제 예상하는 직업과 진로는 피아노 지도교사와 외국 대학원 진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피아노 교수학, 피아노 전공, 음악대학전공, 음악교육

차 례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Participants)
2. 연구의 제한점 (Limitation)
3. 연구절차 (Procedure)
4. 검사도구 (Questionnaire)

IV. 연구 결과

V.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2009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미국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조교수

***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학과 부교수/교신저자(wkchung@cau.ac.kr)

I. 서론

피아노교수학 [Piano Pedagogy]는 피아노 전공분야 중에서 연주전공과 구별된다. 연주전공의 교육목표가 연주력 향상을 통한 연주자 육성에 두는 것에 비해 피아노 교수학 전공은 피아노 학습과 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문 분야이다(정완규, 2005). 전통적으로 피아노 전공은 곧 연주전공을 의미하여왔다(Bashaw, 1980; Boardman, 1954; James, 1995; Norman, 1969). 반면, 피아노 교수학은 20세기를 기점으로 피아노 학습이 일반화되면서 서방세계에서 생성되기 시작한 비교적 신생 학문분야이다(Uszler & Larimer, 1984). 다시 말하면, 피아노 교수학은 20세기 이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발전하였으며,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문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정완규, 권수미, 2008).

반면 한국에서 피아노 교수학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조금씩 그 실체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피아노 교수학이 학문분야로 대학에 도입되기 전, 이미 일선 피아노 교육현장에서는 미국의 피아노 기초 교재의 활용이 피아노 교수법의 한 방편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또한 국내 대다수 피아노 교재를 취급하는 출판사들도 자신들의 교재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방편으로 일선 피아노 지도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피아노 교수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정완규, 2005).

이러한 당시 상황은 피아노 교수학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첫째, 피아노 교수학이 다루는 분야 전체가 온전히 소개되지 못하였다. 둘째, 피아노 교수법의 그 일부분인 피아노 기초 학습이 피아노 교수학의 전부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당시 기초단계 피아노 학습에 종사하는 학원 교사들의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현실에서, 피아노 교수학이 기초 피아노 학습을 다루는 분야라는 것은 곧 피아노 교수학 자체를 수준 낮은 분야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권수미, 2008).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아노 교수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기초학습의 중요성이 무시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들은 곧 대학에서 피아노 교수학을 무시하고 도입을 꺼리

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정완규, 2008). 즉, 대학은 피아노 교수학을 도입하면 학교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대학생 역시 자신들은 연주 전공자이고 피아노 교수학은 수준 낮은 일선 교사들이나 다루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김강희, 2008; 정완규, 권수미, 2008). 결과적으로 피아노를 가르치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피아노 교수학이 한국에서는 잘못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시되었고 수준이 낮은 기초 학습단계만을 다루는 교사들의 분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정완규, 2005).

물론 기존 대학 전임 교수들이 피아노 교수학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던 것도 피아노 교수학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더불어 기존의 전공과 커리큘럼, 그리고 교수진까지도 전통만 유지하고 대물림하려는 인식이 워낙 강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과 개방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도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하였다(정완규, 권수미, 2008).

그러나 1990년대 미국에서 피아노 교수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박사학위자들을 중심으로 음악대학에 피아노 교수학 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하였고,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0년 간 주로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전공 과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2009년 현재 약 10개교 대학원에 도입된 피아노 교수학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김강희, 2008; 정완규, 권수미, 2008). 특히 중앙대학교의 경우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대학원과 더불어 학부에도 피아노 교수학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정완규, 권수미, 2008). 다시 말하면, 피아노 교수학은 대학원을 중심으로 서서히 대학에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고, 학교와 학생들의 관심이 차츰 증가되고 있는 반면, 대학 피아노 연주 전공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졸업 후, 연주자로 활동하게 되는 비율이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피아노 연주전공 졸업생들이 실제로는 피아노 지도에 종사하게 된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정완규, 권수미, 2008).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에서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요인과 학위과정 후 기대하고 있는 진로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각 피아노 교수학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과 앞으로 피아노 교수학 전공을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들에게 피아노 교수학 전공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정보와 함께,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지도에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

파머(Farmer, 1985)에 의하면, 교육학적 의미에서 한 학생의 직업적 선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성공확률과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진술하였다.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직업 선택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과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Mote, 1982). 왜냐하면, 깊은 고민 없이 쉽게 내린 결정과 선택은 한 학생의 삶을 일생동안 실패와 어려움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Hanson, 1994). 성공적인 직업 선택은 학생의 흥미와 재능, 그리고 그 학생이 처해있는 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존스(Jones, 1964)는 음악가로서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학생의 흥미와 재능, 그리고 그 학생이 처해있는 환경을 고려함과 동시에, 음악가로서의 직업 선택이 가져다주는 결과와 책임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한 후에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음악가로서의 직업 선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음악가들의 직업 선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Ramnunan, 2001). 결과적으로 음악가들의 직업 선택에 대한 요인들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 특히 사회적/심리적 요인들 또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Ramnunan, 2001).

음악대학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존스(1964)에 의해

이루어졌다. 존스는 291명을 대상으로 음악을 대학 전공으로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준 다양한 요인들을 그 학생이 처해있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대학 학생들이 음악을 자신의 전공으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 첫째, 부모의 지원 둘째, 선생님의 지원 셋째, 자신감 넷째, 경제적 요인 다섯째, 어린 시절 음악적 경험 그리고 여섯째, 자기 재능에 대한 확신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존스(1964)의 연구 결과는 프로미스-드빅(Ploumis-Devick, 1983)의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음악교육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전공으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들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존스(1964)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지원, 선생님의 지원, 친구, 그리고 음악적 경험 등이 음악을 대학전공으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서 이 연구 결과에서는 ‘역할 모델의 영향’과 ‘직업 선택에 대한 상담’이 음악 대학생의 전공 선택에 영향을 준 새로운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최근 대학생들의 음악전공 선택요인 가운데 역할모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질레스피와 하만(Gillespie & Harman, 199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질레스피와 하만은 17개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155명의 현악기를 주요 악기로 가진 음악교육전공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현악 음악교육(String Music Education)을 대학 전공으로 선택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역할 모델(Role Model)이었으며, 아이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현악기와 음악교육으로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내용은 연구에 참가한 음악대학 학생들은 역할 모델과 함께 ‘자신이 연주하는 현악기가 좋아서’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를 현악 음악교육을 자신들의 전공으로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사회/문화적 요인인 부모와 어린 시절의 음악적 경험 이외에 자신들 스스로 악기를 연주하고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 등의 내적 요인이 현악 음악교육을 대학 전공으로 선택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존스(1964)의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영향(Gilbert, 1994; Mathombela, 1997; Shelter, 1985), 교사의 영향(Gilbert, 1994; Shelter, 1985), 어린 시절의 음악적 경험(Holloway, 1984)등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음악을 대학 전공으로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지적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들이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가 음악연주를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Gillespie & Harman, 1999)와 같은 내적 요인들 또한 대학음악전공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들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대학음악전공 선택은 사회/문화적 요인인 외적요인과 학생 내부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내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주 전공의 음악대학 학생들에 대한 직업적 선택을 연구한 랜드(Land, 1979)는 음악대학 학생들이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회적/심리적 요인들에 집중했던 존스(1964)와는 달리, 음악연주 전공들만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특성을 통해 음악대학 학생들의 직업 선택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졸업 후 음악가로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과 낮은 보수,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위해 여러 가지 직업을 함께 병행해야만 하는 어려움 등의 요소들이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주전공으로 졸업 후 진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연주 전공자들은 비록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연주자로의 성공이며, 그래서 연주전공에 집중하고 싶지만, 졸업 후 진로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쪽으로 전공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홀로웨이(Holloway, 1984)는 랜드(1979)와 마찬가지로 음악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실제 가지게 되는 직업과 원하는 희망직업의 연구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왜냐하면 음악대학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형태와 실제 가지게 되는 직업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음악대학 학생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희망 직업’과 현실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예상 직업’ 사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Newkirk, 1998; Wims, 1994). 나아가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가지기 원하는 희망 직업의 수준이 실제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큰 예상 직업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pral, 1980; Mathombela, 1997; Mote, 1982; Newkirk, 1998).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가장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종류는 크게 연주자와 음악교사(대학교수, 개인지도교사 포함)로 나누어 질수 있다. 홀로웨이(1984)는 음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과 학문적 활동이 두드러진 20개의 대학의 413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Ph.D 학위과정에 등록한 학생들과 DMA 학위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의 박사과정 진학이유와 진로 등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Ph.D 학위과정과 DMA 학위과정 학생들의 박사과정 진학 이유는 두 집단 모두 보다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선택한 것으로 두 그룹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발견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Ph.D 학위를 가진 대다수(94%) 음악교육전공들은 풀타임 정규직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DMA 학위를 소지한 연주 전공(51%)과 연주전공 이외의 음악분야 전공(45%)들이 음악교육 전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풀타임 정규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홀로웨이는 이 연구를 통해 음악 박사 학위자의 대부분이 연주보다는 학교(대학 포함)에서 가르치는 음악 교육분야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순수 연주분야에 종사하는 것 보다 많은 것에 주목하고 음악교육전공 이외의 음악전공들에게도 음악교육과 연관된 교수법과 교육 방법론을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음악대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 사회에서 음악분야 정규직 직업을 가지기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중/고등학교의 음악교사는 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피아노 교수학 전공에 대한 음악대학과 학생들의 관심은 차츰 증가되고 있는 반면, 피아노 연주 전공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정완규, 권수미, 2008). 이 같은 사실은 실제로 피아노 전공으로 졸업 후, 실제 연주자로 활동하게 되는 비율이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피아노 연주전공 졸업생들이 실제로는 피아노 지

도에 종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 준다고 할 수 있다(정완규, 권수미, 2008).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음악가로서의 직업 선택이 매우 신중해야 하며, 그 결과와 책임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한 후에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대학에서 음악전공 선택은 부모나 음악교사의 영향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인 외적요인과 음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학생 내부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내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음악대학 학생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희망 직업’과 현실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되는 ‘예상 직업’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이 앞으로 가지기 원하는 희망 직업의 수준이 실제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큰 예상 직업의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에서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요인과 학위과정 후 기대하고 있는 진로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피아노 교수학 전공생들이 장래 실제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상 직업과 자신들이 원하는 희망직업을 조사하고 비교하여 보았으며, 피아노 교수학 전공 직후 가지게 될 희망 진로와 실제 예상하는 진로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Participants)

이 연구의 모집단(Population)은 한국에서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으로 가지고 있는 9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아노 교수학 전공생이었다. 한국

에서 피아노 교수학을 대학(원) 전공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총 9개로 다음과 같다(정완규, 권수미, 2008).

- (1) 경원대학교
- (2) 세종대학교
- (3) 상명대학교
- (4) 수원대학교
- (5) 숙명여자대학교
- (6) 이화여자대학교
- (7) 중앙대학교
- (8) 한세대학교
- (9) 호서대학교

연구대상(Participants)은 위의 9개의 학교 중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세종대학교, 상명대학교, 중앙대학교, 그리고 한세대학교 등 4개의 학교에 재학 중인 92명($n=92$)의 학생들로 모든 연구 참가자는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25.5세($SD=5.83$; $Range=20-53$)였으며, 피아노를 처음 시작한 나이는 7.5세($SD=2.83$; $Range=4-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진학하기 전 출신고교의 형태는 일반 고등학교($n=61$, 6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술 고등학교($n=29$, 32%)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상업 고등학교 출신이 1명(1%) 있었고 또 다른 1명(1%)은 출신 고등학교를 적지 않았다.

참가자들의 학년을 살펴보면, 대학원 석사과정이 48명(5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 3학년 18명(19.5%), 대학 2학년 17명(18.4%), 대학 4학년 8명(9.0%),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사과정 1명(1.0%)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응답한 참가자들의 현재 하루 연습시간은 2-3시간($n=53$, 58%)이 가장 많았으며, 3-4 시간($n=18$, 20%), 1시간 이하($n=12$, 13%), 4-5시간 이하($n=5$, 54%), 5-6시간($n=3$, 3%) 순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1명(1%)이 하루에 7시간 이상 연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참가자들 중 반수 이상인 53명(58%)은 현재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2명(24%)이 현재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참가자 중 1명(1%)은 현재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피아노를 공부한 경력을 살펴보면, 학원에서 교습 받은 경력이 평균 6.0년($SD=2.96$; Range=1-15), 피아노 개인 교습을 받은 경력이 평균 7.1년($SD=4.46$; Range=0.6-2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피아노 반주 경력이 평균 7.3년($SD=5.15$; Range=0.5-25), 피아노 지도 경력이 평균 5.0년($SD=4.44$; Range=0.6-20), 캠프에 참가한 경력이 평균 2.8회($SD=2.38$; Range=0-10),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연주 경력은 평균 7.4회($SD=7.32$; Range=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수한 피아노 교수학에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 참가자들은 피아노 교수법($n=90$, 98%)과 피아노 문헌($n=65$, 71%)을 가장 많이들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피아노 지도 및 지도재료($n=35$, 38%), 피아노 지도 철학($n=34$, 37%), 피아노 지도 실습($n=28$, 30%), 그룹지도 교수법($n=25$, 27%), 유아 피아노 지도법($n=19$, 21%), 음악교육이론 및 음악교수법($n=18$, 20%), 음악교육심리 세미나($n=11$, 12%), 피아노 테크놀로지($n=4$, 4%) 순으로 응답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 (Limitation)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한국에서 피아노 교수학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9개 학교 가운데 이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4개 학교에 재학 중인 피아노 교수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는 이 연구에 참여한 4개 학교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다른 교육 상황에서의 일반화는 신중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기에 이 연구의 대상이 된 4개 대학의 피아노 교수학 전공생 중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3. 연구 절차(Procedure)

본 연구는 대학(원)에서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요인과 학위과정 후 기대하고 있는 희망 진로와 실제 예상 진로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교/ 분석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 방법(Survey Research Methodology)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설문지를 통한 '지원자 표집(Volunteer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원자 표집 방법은 "연구 참여를 거부하는 연구대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법적, 윤리적 문제 때문에 연구대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구"(성태제, 2003, p. 105)인 경우 사용하는 표집방법이다. 본 연구의 경우 한국의 피아노 교수학을 대학(원) 전공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9개교(모집단: Population)이고, 그 9개교의 모든 학생(모집단)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연구의 참여를 강요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가장 적합한 표집방법은 '지원자 표집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피아노 교수학을 대학 전공으로 개설하고 있는 9개교 중 다음의 4개의 학교가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였다.

- (1) 세종대학교
- (2) 상명대학교
- (3) 중앙대학교
- (4) 한세대학교

위의 4개 학교가 선정된 후, 각 대학에 피아노 교수학 전공교수에게 설문지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고, 담당교수는 설문지를 출력하여 피아노 교수학 전공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를 받아 간 학생 중 92명(Participants: n=92)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다시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4개 대학의 담당교수는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참가자들이 제출한 설문지를 모아 다시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설문지 배부에서 다시 연구자에게 모아지기까지의 시간은 총 11일이 소요되었다.

4. 검사도구(Questionnaire)

본 연구의 검사도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Korean Piano Pedagogy Major Inventory(KPPMI)*였다. 이 *KPPMI* 설문지는 총 31개의 문항으로 제작되었으며,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처음부분은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17개의 문항으로 5 단계 Likert 척도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제작되었으며, 두 번째 부분은 학위과정 후 기대하고 있는 희망 직업과 실제 예상 직업, 졸업 직후 가지고 있는 희망 진로와 실제 예상 진로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기 위한 4개의 문항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개인적 배경에 대한 부분으로 6개의 객관식 문항과 9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검사도구인 *KPPMI*의 구체적 문항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처음 질문인 피아노 교수학을 대학(원) 전공으로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17개 문항이 제작되었다. 모든 문항은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었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 다음의 5가지 내용을 근거로 제작되었다. 첫째, 부모나 음악교사와 같은 다른 사람의 영향에 대한 7개의 질문들(Gilbert, 1994; Jones, 1964; Mathombela, 1997; Ploumis-Devick, 1983; Shelter, 1985), 둘째, 피아노를 가르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등과 연관된 3개의 질문들(Harman & Gillespie, 1999; Holloway, 1984), 셋째, 역할모델이나 언론매체 또는 피아노 교수학 학회 등의 영향에 연관된 3개의 질문들(Gillespie & Harman, 1999), 피아노 음악이나 연주와 연관된 2개의 질문들(Gillespie & Harman, 1999),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 후 진로와 연관된 2개의 질문들(Holloway, 1984; Land, 1979; Newkirk, 1998; Wims, 1994)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인 학위과정 후 기대하고 있는 희망 직업과 실제 예상 직업, 졸업 직후 가지고 있는 희망 진로와 예상 진로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기 위한 4개의 문항(Holloway, 1984; Land, 1979; Newkirk, 1998; Wims, 1994)은 음악 전공 대학생들의 직업 선택에 대한 2개의 문항과 졸업 직후의 계획에 대한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마지막 부분은 개인적 배경에 관한 내용들로 현재 나이와 학년 등 인적사항, 피아노를 시작한 나이 등 대학 입학이전에 피아노 교육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현재 이수하였거나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피아노 교수학과 관련된 질문에 관한 문항들이었다.

본 연구의 검사도구인 *Korean Piano Pedagogy Major Inventory (KPPMI)*의 타당도 측정을 위해 4명의 피아노 전공 교수들을 선정하여 11개의 서술형(Open-ended) 형태의 질문을 통해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Check) 검사를 시행하였다. 4명의 전문가는 2명의 피아노 교수학 박사학위 소지자와 2명의 피아노 연주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모두 대학에서 피아노 교수학 또는 피아노와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4명의 전문가는 본 연구의 검사도구인 *KPPMI*의 내용 타당도를 측정한 결과, *KPPMI*가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요인과 학위과정 후 기대하고 있는 희망 진로와 실제 예상 진로를 측정하는데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 주었다.

연구의 타당성(Validity) 검사 후, 이 연구의 실효성을 측정하기 위해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1명과 대학원생 2명을 대상으로 필드 테스트(Field Test)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3명의 피아노 교수학 전공 학생들은 이 연구의 측정도구인 *KPPMI*가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요인과 학위과정 후 기대하고 있는 희망 진로와 실제 예상 진로에 대한 측정과 관련이 있으며, 설문지의 지시사항과 디자인 그리고 각 문항들이 이해하기 쉽고 설문지를 작성하기가 쉽게 제작되었다는 결론을 내려 주었다.

마지막으로 *KPPMI*에 신뢰도는 8명의 피아노 교수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재검사 신뢰도 검사(Test-Retest Reliability Check)를 시행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검사 결과 Karl Pearson의 단순적률상관계수(*Pearson Product Correlational Coefficient*)에 의한 재검사 신뢰도가 확립되었다($r=0.82-1.00$).

IV. 연구 결과(Results)

본 연구는 한국에서 피아노 교수학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9개의 대학교 중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세종대학교, 상명대학교, 중앙대학교, 그리고 한세대학교 등 4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92명($n=92$)의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요인과 학위과정 후 기대하고 있는 희망 진로와 실제 예상 진로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교 분석해 보았다.

다음의 표 1은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들에 대한 평균(Mean; M)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의 범위는 1.80에서 4.25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M=4.25$; $SD=0.78$), 피아노 음악이 좋아서($M=4.17$; $SD=0.78$),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M=4.14$; $SD=0.86$), 좋은 연주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M=4.13$; $SD=0.84$), 그리고 피아노 지도 경험($M=4.03$; $SD=1.02$)이 피아노 교수학을 대학(원) 전공으로 선택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요인들로 나타났다. 반면 초/중/고 음악교사($M=2.19$; $SD=1.06$), 친구(선/후배)($M=2.18$; $SD=1.25$), 피아노 교수 학회/단체($M=2.14$; $SD=1.03$), 언론 매체(신문/잡지)($M=2.06$; $SD=0.96$), 그리고 부모(가족)($M=1.80$; $SD=0.92$)가 피아노 교수학을 대학(원) 전공으로 선택하는데 가장 적은 영향을 준 요인들로 나타났다.

표 1

피아노 교수학을 대학(원) 전공으로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들
(Piano Pedagogy Choice as College Major)

선택요인 (Factor)	평균 (Mean)	표준편차 (SD)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4.25	0.78
피아노 음악이 좋아서	4.17	0.78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4.14	0.86
좋은 연주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4.13	0.84
피아노 지도 경험	4.03	1.02
대학 피아노 교수학 수업	3.18	1.29
존경하는 역할 모델 (Role Model)	3.09	1.17
대학 피아노 실기 교수/강사	2.85	1.33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활동기회를 얻기 어려워서	2.71	1.23
연주전공으로 대학 전임/강사 자리를 잡기 어려워서	2.64	1.20
피아노 교수학 전공자의 활동	2.61	1.10
대학 이전 피아노 실기 교수/강사	2.39	1.25
초/중/고 음악교사	2.19	1.06
친구(선, 후배)	2.18	1.25
피아노 교수학회/단체	2.14	1.03
언론매체 (신문/잡지)	2.06	0.96
부모(가족)	1.80	0.92

다음의 표 2는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장래 희망직업을 나타낸 것이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가장 원하는 희망직업은 피아노 전공 교수(대학 교수/강사)(36.0%), 피아노 교사(개인교습/학원)(27.3%), 그리고 음악교사(초/중/고등학교)(1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 피아노 연주자(4.3%), 유아음악교사(4.3%), 그리고 교사교육 강사(1%)가 피아노 교수학 전공생들이 가장 낮게 희망하는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희망직업의 직업 분류 별 단순 도수 분포표

(Distribution of Occupational Aspiration by Occupational Category)

희망 직업 (Occupational Aspiration)	도수 (f)	비율 (%)
피아노 전공 교수(대학 교수/강사)	33	36.0
피아노 교사(개인교습/학원)	25	27.3
음악교사(초/중/고등 학교)	14	15.2
전문 피아노 반주자(개인 및 연주 단체 반주자)	7	7.6
기타 음악 관련 활동(편곡/작곡/출판/공연기획 등)	4	4.3
전문 피아노 연주자(클래식/재즈 등)	4	4.3
유아음악 교사	4	4.3
교사 교육강사	1	1.0
Total	92	100

다음의 표 3은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실제 예상하고 있는 직업을 나타낸 것이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실제 장래에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직업은 피아노 교사(63.0%), 음악교사(11.0%), 그리고 전공 교수(대학 교수/강사)(8.7%)인 반면, 교사교육 강사(4.3%), 기타 음악관련 활동(2.2%), 그리고 전문 피아노 연주자(0.0%)가 피아노 교수학 전공생들이 실제로는 가장 낮게 예상하고 있는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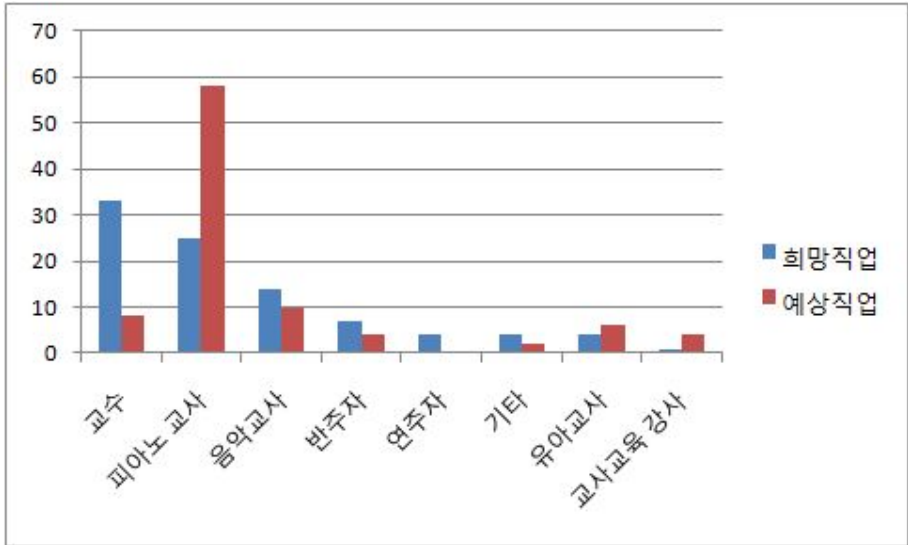
표 3

실제 기대하고 있는 예상직업의 직업분류 별 단순 도수 분포표
(Distribution of Occupational expectation by Occupational Category)

예상 직업 (Occupational Expectation)	도수 (f)	비율 (%)
피아노 교사(개인교습/학원)	58	63.0
음악교사(초/중/고등 학교)	10	11.0
피아노 전공 교수(대학 교수/강사)	8	8.7
유아음악 교사	6	6.5
전문 피아노 반주자(개인 및 연주 단체 반주자)	4	4.3
교사 교육강사	4	4.3
기타 음악 관련 활동(편곡/작곡/출판/공연기획 등)	2	2.2
전문 피아노 연주자(클래식/재즈 등)	0	0.0
Total	92	100

다음의 그림 1은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희망직업과 실제 예상 직업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그림 1의 그래프를 보면,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은 피아노 전공 교수와 피아노 교사, 그리고 음악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앞으로 가지게 될 실제 예상 직업은 과반 수 이상의 학생(68%)이 피아노 교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직업군은 기대치가 매우 낮았으며, 특별히 전문 피아노 연주자가 되겠다고 실제로 예상하고 있는 피아노 교수학 전공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림 1> 피아노 교수학 전공의 희망 직업과 예상 직업 비교

다음의 표 4는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졸업 후 원하는 희망진로를 나타낸 것이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졸업 후 원하는 희망진로는 외국 대학원 진학(58.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악교사(10.8%)와 교습소/학원 운영(9.0%)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국내 대학원 진학(5.4%), 음악과 관련 없는 직업(1.0%) 그리고 연주활동(0.0%)이 졸업 후 가장 적게 희망하는 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졸업 후 원하는 희망 진로의 단순 도수 분포표

(Distribution of Aspiration after Graduation)

희망 진로 (Category of Aspiration)	도수 (f)	비율 (%)
외국 대학원 진학	54	58.6
미국	(36)	
독일	(10)	
프랑스	(2)	
캐나다	(1)	
오스트리아	(1)	
음악교사(초/중/고등학교)	10	10.8
교습소/학원운영	8	9.0
기타 음악 관련 활동(편곡/작곡/출판/공연기획 등)	7	7.6
피아노 지도(개인 교습/학원 강사)	7	7.6
국내 대학원 진학	5	5.4
음악과 관련 없는 직업	1	1.0
연주 활동	0	0.0
Total	92	100

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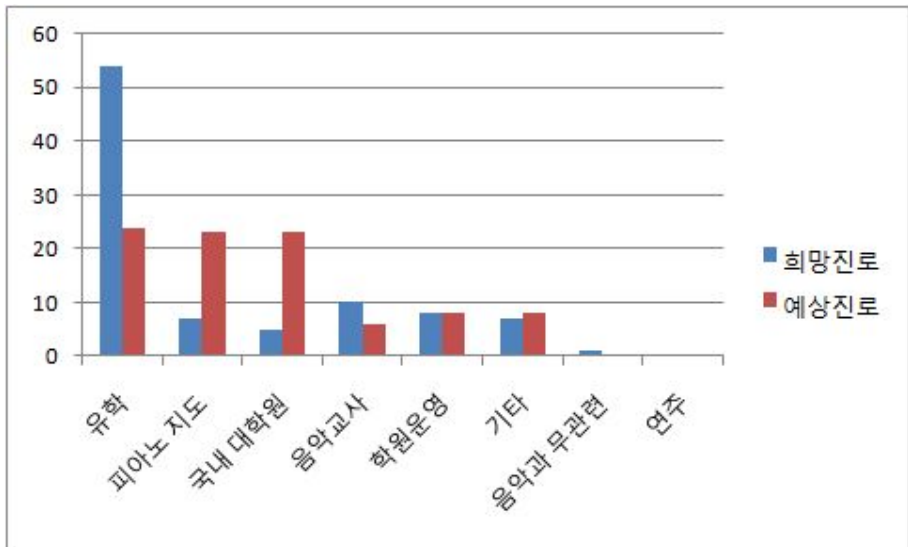
졸업 후 실제 기대하고 있는 예상 진로의 단순 도수 분포표
(Distribution of Expectation after Graduation)

예상 진로(Category of Expectation)	도수(f)	비율(%)
외국 대학원 진학	24	26.0
미국	(16)	
독일	(5)	
캐나다	(1)	
프랑스	(0)	
오스트리아	(0)	
국내 대학원 진학	23	25.0
피아노 지도(개인 교습/학원 강사)	23	25.0
교습소/학원운영	8	9.0
기타 음악 관련 활동(편곡/작곡/출판/공연기획 등)	8	9.0
음악교사(초/중/고등 학교)	6	6.0
음악과 관련 없는 직업	0	0.0
연주 활동	0	0.0
Total	92	100

위의 표 5는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졸업 후 실제 예상하고 있는 진로를 나타낸 것이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졸업 후 가장 실제로 예상하고 있는

진로는 외국 대학원 진학(26.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대학원 진학(25.0%), 피아노 지도(25.0%)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음악교사(6.0%), 음악과 관련 없는 직업(0.0%), 그리고 연주활동(0.0%)이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졸업 후 가장 낮게 예상하고 있는 진로로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2는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희망진로와 실제 예상 진로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 그림 2의 그래프를 보면,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은 외국대학원 진학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예상 진로는 외국 대학원 진학과 국내 대학원 진학 그리고 피아노 지도 세 가지 진로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피아노 교수학 전공의 졸업 후 희망 진로와 예상 진로 비교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원)에서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n=92$)으로 본인들이 피아노 교수학을 대학(원) 전공으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과 학위과정 후 갖기를 원하는 희망진로와 실제 예상 진로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것 이었다. 연구대상은 한국에서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으로 개설하고 있는 총 9개의 대학교 중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세종대학교, 상명대학교, 중앙대학교, 그리고 한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92명($n=92$)의 학생들로 모든 연구 참가자는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Korean Piano Pedagogy Major Inventory(KPPMI)*를 사용하여 피아노 교수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선택요인과 학위과정 후의 희망진로와 실제 예상 진로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검사도구인 *KPPMI*의 타당성을 얻기 위하여 4명의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한 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 $r=0.82-1.00$) 검사를 시행하여 *KPPMI*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들은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피아노 음악이 좋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좋은 연주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피아노 지도 경험이 피아노 교수학을 대학(원) 전공으로 선택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요인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악 대학생들이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가 음악 또는 연주를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와 같은 내적 요인들이 대학에서의 음악전공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들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 이었다(Gillespie & Harman, 1999).

반면 *초/중/고 음악교사, 친구(선/후배), 피아노 교수 학회/단체, 언론 매체(신문/잡지), 그리고 부모(가족)가 피아노 교수학을 대학(원) 전공으*

로 선택하는데 가장 적은 영향을 준 요인들로 나타났다는 것은 부모의 영향, 교사의 영향, 어린 시절의 음악적 경험 등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지적인 선행연구 결과들과는 다른 것이었다(Gilbert, 1994; Holloway, 1984; Mathombela, 1997; Shelter, 1985). 이러한 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전 선행연구들이 음악대학의 일반적인 전공 선택에 대하여 연구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선택에 집중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에서의 피아노 교수학이 피아노 연주전공에 비해 비교적 신생학문이며 대학에 뿌리를 내리는 초기 단계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영향을 주기에는 초기단계라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피아노교수학회/단체나 언론매체(신문잡지)의 영향력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역할 모델(Role Model)이나 음악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전 연구 결과(Gillespie & Harman, 1999)에 비추어 보면, 피아노 교수학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피아노 교수학회/단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피아노 교수학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을 이끌고자 하는 대학들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전략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가장 원하는 희망 직업은 피아노 전공 교수(대학 교수/강사), 피아노 교사(개인교습/학원), 그리고 음악교사(초/중/고등학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게 희망하는 직업은 전문 피아노 연주자, 유아음악교사, 그리고 교사교육 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실제 장래에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직업은 피아노 교사, 음악교사, 그리고 전공 교수(대학 교수/강사)였고, 교사교육 강사, 기타 음악 관련 활동, 그리고 전문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 교수학 전공생들이 가장 낮게 실제로 기대하고 있는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음악대학생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희망 직업’과 현실적으로 가지게 될 것

이라는 ‘예상 직업’ 사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이전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었다(Newkirk, 1998; Wims, 1994). 또한 본 연구결과, 가장 원하는 직업이 피아노 전공 대학교수인 점과 실제 기대하고 있는 직업이 피아노 교사인 점을 살펴보면, 앞으로 가지기 원하는 희망 직업의 수준이 실제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큰 예상 직업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이전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Kapral, 1980; Mathombela, 1997; Mote, 1982; Newkirk, 1998).

한편, 유아음악교육 강사의 선호도가 낮은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왜냐하면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선택 요인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요인들이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이 좋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인 점을 비추어 볼 때 다소 상반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것,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선택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것이라고 하면서, 정작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인 유아음악 교사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조금 의외의 결과였다. 아이들은 좋으나 너무 어린 아이는 선호하지 않는 것인지, 단순히 피아노 지도는 좋으나 포괄적인 음악교육은 싫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진로로 원하지 않는 직업 중 최하위는 교사교육 강사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아노 교사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라는 직업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이 아직 사회적으로 생소하거나 선택의 기회가 많지 않은 직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면에서 피아노 교수학 전문가들은 피아노 교사교육 강사라는 직업에 대한 중요성과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 가능성을 고려한 직업선택에서는 피아노교사(개인교습/피아노교습소 또는 학원 강사 및 원장)가 63%로 매우 높게 선호되었다. 반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장 높게 선호되었던 대학교/강사는 1위에서는 3위로 조금 떨어졌지만 비율로 보았을 때는 33.0%에서 8.7%로 급강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지만 실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음악교사와

전문피아노 반주자는 조금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유아음악교사와 교사교육 강사는 실제로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피아노 연주자의 경우 실제로 직업이 될 확률은 0%로 나타나 연주자가 될 자신이 거의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피아노 연주자라는 직업이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졸업 후 원하는 희망진로는 *외국 대학원 진학*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악교사와 교습소/학원 운영*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국내 대학원 진학*, *음악과* 관련 없는 직업, 그리고 *연주활동*이 졸업 후 가장 적게 희망하는 진로로 나타났다. 한편,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졸업 후 실제로 예상하고 있는 진로로는 *외국 대학원 진학*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대학원 진학*, *피아노 지도*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음악교사*, *음악과* 관련 없는 직업, 그리고 *연주활동*이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졸업 후 가장 낮게 예상하고 있는 진로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들 중, 피아노 교수학 전공자들이 대학(원) 졸업 후 원하는 희망진로에 대해 과반수(58.6%) 이상이 외국 대학원 특히 미국 대학원 진학을 희망(66.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피아노 교수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실제 예상하고 있는 진로에서는 그 비율이 26%로 낮아져 외국 대학원 진학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다. 졸업 후 선호되는 희망진로로 외국 유학에 이어 음악교사가 두 번째 선호 대상이었으나 그 비율은 10.8%로 미미했다. 이는 직업으로는 안정성 등의 이유로 선호되지만 실제로는 음악교사가 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진다. 흥미로운 사실은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 또는 피아노 지도는 졸업 후 대부분의 피아노 교수학 전공생들이 선택하는 직업이나 이것이 실제 원하는 활동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인들이 실제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활동이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활동이라는 결과에 대해 그 원인과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

한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피아노 교수학 전공생들은 국내 대학원 진학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진로 가운데 하나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상되는 진로로는 가장 높은 선택 중 하나로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피아노 교수학 전공학생들에게 국내 대학원은 매력적인 선택이 아님에도 현실적으로는 부득이하게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대학원이 외국 대학원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현실적으로는 선택하지만 실제 선호도는 거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국내 대학원들의 경쟁력 강화와 수준 향상이 시급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대학원의 현실을 조명하고 그 개선책과 발전 방향을 조사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피아노 교수학 전공생들이 연주활동의 경우에는 원하는 활동이나 가능성 있는 활동으로 거의 대다수가 선택하지 않은 점은 연주활동의 기회가 매우 희박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 우리나라 피아노 교수학 전공자들 (특히 대학원)의 연주 기량이 낮아 연주 활동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 모두 매우 희박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피아노 교수학이 피아노 연주전공에 비해 신생 학문이며 대학에 뿌리내리는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이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 향후 피아노 교수학 전공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피아노 교수학을 운영하고 있는 각 대학들과 앞으로 피아노 교수학 전공을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들에게 학생 유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연구는 피아노 교수학이 전공자들의 사회 활동과 사회적 기여도를 파악함으로 전문인 양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의 구성이나 전공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피아노 교수학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수미 (2008) 우리나라 피아노교수학의 학문적인 정착의 필요성 *International Piano*, 65, 62-65.
- 김강희 (2008) 대한민국 피아노 교수법 전공 교과과정 심층연구 *한국 피아노 교수법 학회 논문집*, 4, 19-48.
- 정완규 (2005) 피아노 교수법의 활성화를 위한 고찰 *한국 피아노 교수법 학회 논문집*, 1, 39-55.
- _____ (2008) 피아노 페даго지의 중요성과 한국에서의 발전 방향 *International Piano*, 65, 62-64.
- 정완규, 권수미 (2008) 우리나라 대학원에서의 피아노 교수학 석사과정 운영 실태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 *이화음악논집*, 12 (2), 28-62.
- Bashaw, D. R. (1980). The evolution of philosophies and techniques of piano pedagogy from 1750 to 1900 traced through the teachings of C. P. E. Bach, Clementi, Czerny, Chopin and Les Chetizk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California, 1980).
- Boardman, R.C. (1953). A history of theories of teaching piano techniqu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Farmer, H. S. (1985). Model of career and achievement motivation for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3), 363-390.
- Gilbert, A. C. (1994). Women in the Big Five orchestras: An exploratory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kron, Akron.
- Gillespie, R., & Hamann, D. L. (1999). Career choice among String Music Education students in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3), 266-278.

- Hanson, S. L. (1994). Lost talent: unrealized educational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among U.S. youths. *Sociology of Education*, 67, 159-183.
- Holloway, A. J. (1984). A descriptive analysis of musical experiences, employment patterns, career aspirations, curricular content, and attitudes of doctoral aspirants in music.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Tallahassee.
- James, M. J. (1995). The evolution of pedagogical thought in American piano teaching of the twentieth centu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95).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55(07), 1735.
- Jones, M. O. (1964). Factors influencing students in the choice of music as a care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Tallahassee.
- Land, M. S. (1979). The role of counseling in the career development of musicians: A case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New York.
- Mathombela, E. N. (1997).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of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Afric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 Mote, L. L. (1982). Occupational aspirations, expectations and other selected variables influence upon Arkansas high school senior's choice of curriculu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kansas, Fayetteville.
- Newkirk, J. L. (1998). Adolescents'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for future education and career: An examination of psychological variables as mediators of 123 social backgroun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New York.

- Norman, J. L. (1969). A historical study of the changes in attitudes toward the teaching of piano technique from 1800 to the present time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1968).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29(10), 3633.
- Ploumis-Devick, E. (1983). Career development patterns of male and female music education majors at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Tallahassee.
- Ramnunan, K. (2001). The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of students majoring in jazz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North Tex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Denton, TX.
- Shelter, D. J. (1985). Family and early education influences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symphony orchestra musicians. *ISME*, 12, 42-46.
- Wims, D. (1994). The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of seniors in four rural, predominately black southwest Georgia secondary schoo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ABSTRACT

Career Choice of Piano Pedagogy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Choi, Jin Ho · Chung, Wan Ky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ived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areer choice of piano pedagogy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and to compare their occupational aspiration and the actual occupational expectation after graduation. The *KPPMI* was developed for investigating the career choice to the piano pedagogy major and their occupational aspiration and the actual occupational expectation after graduation. The participants indicated that they chose piano pedagogy as the college major because they liked piano music and teaching piano and children. Also, other reasons to choose piano pedagogy as college majors were the experience of teaching piano and the improvement in piano performance skills. Regarding their occupational aspiration and expectation for the future occupation, the participants pointed out that the most desirable occupation was a piano professor while the actual occupational expectation was a piano teacher for children. Recommendation and conclusion were provided for piano pedagogy majors and Korean Universities.

Key Words : Piano Pedagogy, Piano Major, Music Major, Music Education

투고일: 9월 29일, 심사: 11월 11일(12월 6일), 게재확정일: 12월 12일